

‘일석삼조’ 그린인프라 구축 나선다

광주시, 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생물 다양성 보전 사업 선제적 추진 85억 들여 9곳 생태계 복원...영산강·황룡강·광주천 생태습지 조성

광주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선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그린 인프라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습지 등 생태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탄소흡수와 기후복원,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2045(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자연 생태 기반 그린인프라 확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자연생태 기반 그린인프라 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시는 가장 먼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심 내 방치·훼손된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85억을 들여 총 9곳 24만8000㎡의 생태계를 복원 중이다. 시는 야생생물의 서식처 복원부터 훼손된 생태계·하천 복원, 산림과 단절된 생태축 연결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매년 1억 이상을 지정해 복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태계 훼손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진행되며, 자연환경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8일 도심 내 최초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2.70km)의 보전계획 완료시점(11월)에 맞춰 후속 보전·복원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한다. 특히 장록습지와 연결해 생태축 확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황룡강대상공원(3만2000㎡)의 오염원 유입 저감과 훼손지 복원사업을 하고, 교육·체험·주민참여를 위한 거점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그린인프라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지역 3대 블루네트워크인 영산강과 황룡강, 광주천을 중심으로 교란생물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해 환경부 지정 교란생물(33종 1속) 중 6종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10여 t을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도 전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시 주관으로 장록습지에서 ‘제1회 2021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는데, 참여 시민들은 “생태전문가와 함께 일정한 지역을 관찰하고 탐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몰랐던 우리지역의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보고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해했다.

박재우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045 탄소중립 광주’ 달성과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광주의 장록국가습지 지정 등 그린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전국인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덕남정수장 시설 점검



염방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시즌을 맞아 관계 공무원과 덕남정수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덕남정수장은 일평균 21만㎡의 수돗물을 생산해 서구, 남구, 광산구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파트너십 데이’ 성료

AI스타트업-투자자 만남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29일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인공지능 파트너십 데이’는 광주시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AI스타트업을 투자사에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AI스타트업에 투자 또는 AI스타트업과의 협력 사업을 바라는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상담회로 진행됐다.

AI파트너십데이에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AI스타트업 10개사, 유망 AI기업을 발굴하려는 투자자 13개사, AI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대·중견기업 등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

번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AI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제품, 재난·재해 대응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AI스타트업과 투자자간 1대 1상담에서는 AI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기업 이력, 기술력, 인력구성 등 기업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또 오픈이노베이션상담회에는 SK㈜ C&C, ㈜LG유플러스, 금성백조그룹, 한국무역협회(KITA)가 참여해 AI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 공동사업화 등에 대한 상담과 협의를 진행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과장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광주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만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검사 무상 제공

‘쌀 품질 알리미’ 서비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지역 쌀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쌀 품질 알리미’ 서비스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쌀 품질검사는 단백질함량 등의 성분 분석과 PCR기기를 활용한 품종판별 등을 정밀 분석해 농가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쌀 품질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일반 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절감은 물론 검사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인 농업인, 마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쌀 품질 알리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료(쌀) 채취 후 지번, 지적, 작물명(품종),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상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062-613-5293)으로 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품질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지역 농업인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딱지치기’ 이벤트 광주도시철도공사 캐릭터인 ‘쌍야’가 지난 29일 서구 상무역에서 최근 유행 중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메트로 게임’을 열고, 도시철도 이용 승객들과 추억의 놀이인 ‘딱지치기’ 감싸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4개 공공기관 출입문 점자표기 실태 조사

광주시 11월 한달간 점검

광주시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 점검·정비에 나선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134곳에서 11월 한 달 동안 점자표기 실태를 조사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출입문 점자표기판, 계단·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기 등 11개 항목을 점검한다.

2018년 전수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은 82.2%인 반면 점자표기 관련 설치율은 40%대로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후 점자표기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선영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행정의 기초가 되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부터 장애인 편의 확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점자표기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공식활동 돌입

민간 전문가 등 20명 첫 협의회

광주시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스마트 도시사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김중호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했으며, 민간위원은 시의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시민단체 등에서 도시계획·정보통신·스마트서비스 각 분야별 전문가 추천으로 위촉했다.

협의회는 ‘광주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법정기구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이경아 조선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가칭)스마트 도시통합광역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스마트도시통합광역센터’는 안전·교통·환경·복지·상하수도 등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화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